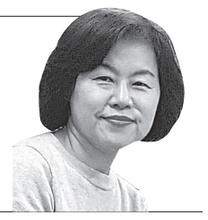
| 현불 논단 |

세 숟가락이 이룬 기적



이미령
칼럼니스트

미얀마 오지 마을서 있던 일화
곤궁한 시기 온 마을주민 굶어
참깨 수확 후에는 여유 생겨나
주민들 스님 공양 올리고 축제

스님들 세 숟가락만 음식 가져가
마을 노인 · 어른들도 세 숟가락만
남은 공양물 모두 아이들 차지

'낮고 약한 곳으로 돌아가야'란
믿음으로 그들은 자신을 인내해

며칠 전 국제구호단체인 더프라미스 상임이사 묘장 스님을 라디오 프로그램에 모셨다. 스님께서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가를 다니며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들려주었는데 깊은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있었다.

미얀마 마궤이 낫마욱 오보마을에서의 일이다. 이 지역에서 더프라미스 직원들과 함께 약 3년 간 지역개발과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던 묘장 스님은 마을의 큰 사찰에서 한동안 머물렀는데, 하필 그 마을이 지독한 '참깨고개'를 겪고 있던 시절이었단다. 참깨고개는 우리의 보릿고개를 떠올리면서 묘장 스님이 지어낸 말이다. 보릿고개 같은 지독한 춘궁기를 주민 모두가 겪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시주로 공양을 해야 하는 스님들에게는 그 굶주림이 더 혹독했다. 단 몇 숟가락의 밥만으로 하루를 견뎌야 했는데, 이는 스님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그곳 스님들과 똑같이 아주 적은 식사로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느라 너무나 힘들었단다.

그러다 참깨를 수확하고 이를 팔면 온 마을에 여유가 생겨난다. 마을 주민들은 가장 먼저 스님들을 공양하는데, 몇 달 동안 전혀 먹어보지 못한 맛좋은 음식들이 커다란 접시에 수북하게 담겨 사찰로 전해진다. 묘장 스님은 이렇게 고백했다.

"정말 기대가 컸어요. 이제야 밥다운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행복했지요."

주민들은 정성스레 마련한 음식들을 법랍 순으로 스님들에게 올렸다. 그런데 사찰에서 가장 높은 스님이 딱 세 숟가락만 덜고는 그릇을 물리는 게 아닌가. 그 아래 스님도 딱 세 숟가락만큼만 음식을 덜었고, 맛있는 음식이 여전히 수북한 접시들이 한국의 묘장 스님 앞으로 왔을 때 스님도 양껏 먹겠다는 생각을 접고 눈치를 보며 세 숟가락만큼만 덜었다. 그 다음 스님도, 그 다음 스님도…. 그 사찰의 모든 스님이 딱 세 숟가락만 음식을 덜었고 접시의 음식은 거의 그대로인 채 마을의 연장자들에게 넘어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노인들 역시 모두 세 숟가락만큼만 음식을 덜었다. 이어서 그 사찰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세 숟가락만을 덜었다.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풍성한 음식들을 아끼는 광경을 지켜본 묘장 스님은 의아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릇에 거의 그대로 남겨진 음식들의 종착지를 보고 스님은 "아하"하고 무릎을 쳤다.

그곳에는 마을 아이들이 있었다. 스님은 말했다. "그 많은 음식들을 아이들 앞에 다 풀어놓은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온 수북한 음식접시를 받고서 원 없이 맘껏 먹었단다. 스님들과 어른들은 아이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위해 그 혹독한 굶주림 끝에 찾아온 달디 단 음식조차도 세 숟가락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조절했던 것이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분명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리라. 소중한 것은 흐르고 흘러 가장 낮고 약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그 원칙을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각오,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어도 함께 견뎌낼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이다. 모진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기적은 바로 이런 믿음과 실행 끝에 찾아오는 것 아닐까.

어차피 세상에 빈부의 차이가 없을 수 없다면, 그래서 귀천의 차별도 당연히 생겨나게 마련이라면 생각을 좀 돌려보는 것도 필요하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제 앞으로 찾아온 이익을 남에게 돌릴 기회와 힘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세상이 굶주렸는데 자기 밥상만 풍성한들 그 밥이 달고 맛좋을 리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이다.



마음산책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부처님은 위대한 상담자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해결과 성장을 조력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상담자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상담은 오묘한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는 전문성과 성숙된 의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한 인성을 갖춰야 한다.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필자는 명상을 만나며 삶이 안정되고 기쁨이 깊어지면서 내면이 밝아졌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말씀은 곧 상담이요 불교가 바로 명상임이 명료해졌다.

상담과 명상은 내면의 세계라는 같은 곳을 향하지만 상담은 자기를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주의의 경향이 강해지지만 명상은 자기를 소멸함으로써 개인을 넘어 세상을 밝게 한다는 점이 다르다.

부처님은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빠르게 변하는 본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현상을 확연히 알아차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러면 고통도 괴로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욕망, 성취하고자 하는 대상에 연연함으로써 눈앞에 지나가는 새로운 현실을 놓치게 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순간에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명상'이다.

부처님은 내담자를 치유하는 탁월한 상담자였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도벽' 문제로 부처님을 찾아왔다. 청년은 "마음은 훔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몸은 이미 길들여져서 보이기만 하면 훔치게 된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훔쳐라, 그러나 알고 훔쳐라"라고 훔치는 상황에 직면하도록 했다. 청년은 훔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갔지만 "훔쳐라"라는 한 마디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덧붙여 "알고 훔쳐라"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인가? 청년은 알아들을 수 없는 부처님의 말씀에 당황했으나 깨달은 분의 말씀인지라 그 말씀을 화두로 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손이 다른 사람의 물건 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자신이 물건을 훔친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손을 멈추며 '알고 훔쳐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고 알아차리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자신의 도벽행위를 멈추었다.

이러한 문제를 일반상담에서는 어떻게 할까? 대체로 내담자의 발달사를 통해 도벽성의 원인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행동대안을 찾아 생활에 적용해 보아 행동이 변화될 때 해결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부처님은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고 하셨듯이 사람의 마음을 직관함으로써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셨다.

부처님은 늘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알고 자신의 실체를 '관계적 존재'로 이해함으로써 스스로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셨다. 이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불교가 참된 평화를 이루려는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불교에서 상담은 남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려는 기본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비록 세상의 중심이 개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세상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평화로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부처님은 위대한 상담자이시다.

社 說

간화선의 경쟁, 선택 아닌 필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법인 간화선이 다양한 수행법들과 경쟁해 살아남아야 조계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이 나왔다. 백성호 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가 조계종 화합과혁신위원회 토론회서 밝힌 이 같은 견해는 조계종 내부가 아닌 외부인사의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간 한국불교는 간화선을 가장 수승한 불교수행법으로 평가하면서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가보(家寶)처럼 여겨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분명 간화선을 대하는 이 같은 자세는 일종의 신비주의로 작용해 대중에게 비범한 수행법처럼 느껴지게 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런 자세는 더 이상 대중에게 통용되지 않는다. 도리어 고루하거나 어려운 수행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과거 전국의 선방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커피가 이제는 차(茶)를 제치고 스님들의 중요한 기호식품이 됐듯이, 요즘 선방에는 간화선이 아닌 위빠사나 등의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조계종의 현실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서양과 동남아 등을 찾아다니며 외국인들에게 전한 것도 간화선이 아닌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이었다.

간화선의 위기는 곧 조계종의 위기다. 육조 혜능의 조사선이 해동 초조 도의국사에 의해 한반도에 전해지고, 이는 긴 세월을 거쳐 간화선이라는 독특한 한국불교만의 수행법으로 변모했다. 이제는 다시 한 번 변화를 꾀할 때다.

간화선을 현대적으로 풀어내 대중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하면 조계종의 백년대계는 역사 속 박제로 끝날지도 모른다.

불교의례 가치 알려 나가자

영산재와 수륙재에 이어 생전예수재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앞두고 있다. 각 시도지정 무형문화재에 이어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도 머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불교의례와 의식의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각종 세미나를 통해 그 의례와 의식이 지닌 의미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알려나갔다. 여기에 각종 의례절차를 복원하고 설행했으며, 전승을 위한 전수자를 발굴하고 기관을 세웠다.

하지만 정작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그 의례와 의식이 지닌 참의미를 국민들에게 전하고 홍보하는 것에는 모자람이 있었다. 의례와 의식의 형식에 얽매여 이를 설행하는데에만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

영산재와 수륙재가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 안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는 의미를 지닌 만큼 의례 설행과 함께 현대사회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함양의 프로그램이 동반 수행되어야 한다.

생전예수재의 경우 생전에 자신의 죄업을 참회한다는 의미가 있다. 스스로 업을 녹이는 수행을 통해 사회를 자정해가는 의미가 크다. 생전예수재가 무형문화재에 등재된다면 이러한 의미에 맞게 스스로를 참회하고 공공선을 늘리는 현대화된 프로그램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불교전통의식은 의식대로 전승하면서 이해하고 참여하기 좋은 다양한 후속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함이다. 이와 함께 이들 의식이 가진 참가치와 의미도 적극적으로 알려가는 움직임도 필요하다. 의례와 의식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때 생명을 지닌다. 불교계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